

죽음의 길, 생명의 길

본문 : 에스겔서 33장 1-20절

2020년 4월 13일(월)

#1. 파수꾼의 역할(1-6절)

·2하-3상, "...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파수꾼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동시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3하, "...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파수꾼의 사명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6절, "... 칼이 임함을..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에게 가장 큰 죄는,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지 않는 겁니다.

#2.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에스겔(7-9절)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 받은 곳은 바벨론입니다.

·7 하, "...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파수꾼은 철저히 먼저 하나님에게 듣고, 그 '들은 말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8-9절, "...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악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파수꾼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십니다.

#3.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10-20절)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은,

예루살렘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앗수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 하셨다가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자,

하나님은 앗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철회하셨죠.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2절, "...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얹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16절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죄 가운데 살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떠나 의롭게 살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한 마디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과거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더 이상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신앙의 자랑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더 이상
과거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20절, "...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대로, 지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4. 에필로그

우리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 왔느냐 보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들은' 말씀만 '대신하여'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파수꾼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